

살균소독과 항생제의 잘못된 믿음



박 세 준
SJM미생물연구소

1. 살균 소독의 목적

공기와 물, 흙, 생명이 없는 유기물, 초목과 동물, 곤충에 이르기까지 생명체의 장내 등 모든 곳에 유해균과 유익균이 공존하고 있다.

축사를 살균소독하는 목적은 축사 공기와 내부에 유해균을 억제하는데 있다. 그러나 실상은 유해균은 사멸되지 않고 유익균만 죽는다. 이 사실은 살균 소독에 악취가 저감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고 있음이 증명하고 있다. 필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면 축산분뇨를 100℃로 끓여보라. 냄새가 없는데 악취세균이 멸균되었다는 이야기다.

살균소독을 한 양돈농장에 왜 돼지가 죽고 양계장에 조류인플루엔자가 왜 왔는가?

살균소독과 항생제 사용의 목적은 유해균을 억제시켜 가축의 폐사를 예방하는데 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로 폐사율을 높여 불가피하게 항생제 사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가정에 아토피와 만성장염으로 하루에 두세 번 화장실을 찾거나 변비 등 성인병이 없는 가정이 드물다. 이게 바로 항생제와 살균소독제가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먹거리를 통해 장내 유익균이 피해를 입어 나타난 결과이다.

2002년 매주 수요일을 살균 소독의 날로 정하고 양돈농장에 소독제를 지원하면서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을 정부가 만들었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폐사율이 상승하여 현재 10두를 출하하는 농가가 드물다는 것이 양돈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양계농장도 마찬가지다. 살균소독제를 사용함으로써 양계장

에 악취가 많이 발생하여 가스에 의한 폐사가 발생되고 아무것이나 섭취하는 닭의 습성상 깔짚에 살포된 살균제가 장내에 들어가 설사를 비롯해 균일하게 크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양계산업을 위축시켰다.

결과적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유기농업에 너무나 소중한 자원을 폐기물화하여 농토에 쓸 수 없게 되자 축산인들은 불가피하게 막대한 돈을 들여 해양투기로 바다를 오염시킬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해양투기문제를 해결한다면서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축산분뇨자원화시설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니 소가 웃을 일이 아닌가?

이와 같이 살균 소독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법을 만든 정부에 모든 책임이 있다. 결과적으로 FTA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 손해배상청구운동을 결사적으로 펼쳐야 한다.

2. 항생제 사용목적

가축에 항생제 사용목적은 장내 유해균을 억제시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있다. 또한 사료에 첨가된 항생제는 성장촉진용으로 소화효율을 높여 사료를 아끼고 증체율을 높이는데 있다. 그러나 결과는 폐사율을 높이고 있다. 설사하는 가축에게 항생제를 급이하면 분변에 악취가 더 발생되고 빠르게 폐사하고 있음이 증명한다.

분변에서 악취가 심하다는 이야기는 항생

제가 유익균만 억제시키고 유해균(有害菌)은 오히려 증가시켰다는 이야기다. 장내 생태계는 냄새로 말하기 때문에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

설사하는 가축에게 항생제를 먹이면 빠르게 죽는데 그 이유는 항생제가 장내 유익균을 죽여 효소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유해균이 독가스를 더 많이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살균소독제와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축산선진국 유럽은 24두를 출하하고 있음이 증명하고 있다.

3. 친환경 살균소독제 슈퍼유산균의 위력

슈퍼유산균을 인분에 살포하면 5분 이내에 악취발생이 중단된다. 그러나 살균소독제를 인분에 살포하고 1개월이 경과해도 악취가 더 많이 난다. 이는 슈퍼유산균이 살균소독제보다 수 십 배 강하다는 증거이다.

슈퍼유산균은 대기 중 악취는 1초에 해결하고 재래식화장실과 같이 고농도 악취도 살포하는 순간 사람의 코로는 느끼지 못할 정도로 탈취된다. 24시간이 경과하면 분변에서 발생하는 악취도 발생하지 않고 파리유충이 모두 사멸되어 있다.

양돈농장과 양계농장에 살포하는 순간 70~80%의 대기 악취가 해소되고 축분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파리를 24시간 이내에 90% 이상 방지되어 약 30일간 효과가 지속된다. 또한 양돈농장에서 항생제로도 절대 치료되지 않는 삼출성포피염과 모돈의 포도상구균,

모든의 등피부 각질이 해소된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계분, 축산분뇨, 도축 부산물퇴비공장도 악취문제를 걱정할 일이 없고 발효속도가 빨라 효율이 높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식물병리과에 의뢰해 분석된 자료에 따르면 농민들이 슈퍼유산균으로 발효된 퇴비를 사용하면 고추나 배추, 토마토, 사과, 배 등에 발생하는 탄저병과 역병 등 병에 탁월한 예방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에 3년간 시험한 결과에 따르면 질병 예방효과는 물론 성장촉진효과가 탁월하고 수확량이 1/3 이상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유해균을 억제하는 효과는 대기 흙, 물 유기물 등 어디서나 가능하므로 농업까지 친환경이 가능한 것이다.

4. 친환경 항생제대체물질 슈퍼유산균의 위력

농림부 통계를 보면 한국의 양돈농장에서는 연간 모돈 1두가 24두 새끼를 낳는데 그중 절반은 폐사하고 절반은 출하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10두를 출하하는 농가가 드물다는 것이 양돈농장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이 같은 농장에 1년간 사용하면 폐사율이 3% 이하로 떨어진다.

이밖에도 사용현장에서 필자가 모르고 있던 여러 가지 질병예방효과와 특히 모돈들이 건강한 새끼를 낳고 설사 등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높아 30일 후 폐사가 원천적으로 예방된다고 이구동성으로 평가하고 있다.

양계농장 사용결과를 소개하면 기존 제품을

사용할 때는 악취가 나면 병아리가 스스로 눈물을 흘려 날개에다 눈물을 닦아 양쪽 날개에 검정 먹줄을 친 듯이 줄이 나 있다. 그러나 플러스세븐을 사

용한 농장은 악취가 없어 닭이 눈물을 흘리지 않아 깃털에 먹색 줄이 없다.

또 항생제를 사용할 때보다 병아리의 활기가 넘치고 특히 설사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폐사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항생제를 사용한 경우 35일 사육에 평균 1.45kg 성장하나, SJP미생물을 사용하면 평균 1.75kg 성장하여 항생제보다 300g 우수하다.

특히 산란계가 6개월이 경과하면 노화로 계란의 표피가 거칠고 산란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이 같은 노화현상이 연장된다고 한다.

또 2007년 하절기에 조류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질병으로 주변 양계농장에는 피해가 컸는데 이 제품을 사용한 농장은 피해가 없었다고 사용자들이 평가하고 있다. 이는 건강한 사람은 감기를 걱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제품을 사용하면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바이러스에도 면역력이 탁월하다는 증거이다.

필자는 이 같은 슈퍼유산균이 국내에서 개발된 것을 하늘이 준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축산농가들이 살균소독과 항생제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여 많은 축산농가가 친환경축산업으로 발전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 문의 : (02)797-1114 (주)엔텍바이오

